

## 권두언

박재순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홍보분과장



**한** 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와 인연을 맺은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에 대해서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많은 분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한국 호스피스가 발전되어가도록 애쓰려고 합니다.

아직 일부 의료인들이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국가적으로도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약한 기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를 위해 활동하시기에 한국 호스피스의 앞날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은 이 분야의 개척자이시며 선구자입니다.

지난해에는 미흡하지만 서명운동과 걷기대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염원을 전달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술 밥에 배부르리라 기대할 수는 없겠지요? 머지않은 날에 관련 법들이 만들어져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이 인간으로써 존엄성을 유지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편안하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활동이 원

활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불철주야 열심히 활동하시는 여러분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은 물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분들도 머지않아 임종하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려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호스피스를 알고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 보다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호스피스는 곧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정신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성찰을 하게함으로써 하루 하루의 삶을 풍요로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호스피스를 통해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줄여줌으로써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더욱 잘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몇몇의 사람들로만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지체가 한몸으로 조화를 이루듯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힘을 모을 때 가능합니다. 호스피스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팀접근을 함으로써 그 일을 이룹니다. 사순시기를 맞이하여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호스피스의 발전을 염원해 봅니다.